

미래 일자리가 보인다 국가기술자격 17종 신설

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증명하는 '자격'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. 빅데이터,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래 산업 현장을 이끌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국가기술자격은 미래 일자리의 마중물로 손꼽힌다.

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분야의 자격을 신설해 올해부터 시행한다.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, 로봇기구개발기사 등 미래 유망 분야를 포함한 17개 종목이다.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설한 국가기술자격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산업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다.

국가기술자격 신설은 크게 세 분야로 이뤄졌다. ▲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·신산업 분야 ▲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관련 분야 ▲ 숙련기술인 경력개발과 지원 분야다.

로봇기구개발기사 등은 신기술·신산업 분야로,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생산 공정에서 로봇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더욱 커진 데 따른 것이다. 공단은 관련 자격 신설로 신기술·신산업 분야 핵심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.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, 로봇하드웨어 개발기사,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등 6종이 해당한다.

환경위해관리기사 등 환경·안전 분야는 환경·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, 방재기사,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5종을 신설했다. 보석감정산업기사 등 경력 개발·지원 분야에서는 숙련도를 세분화(기능사 자격보다 상위인 산업기사 자격 추가)하고, '자격'으로 인정받지 못한 식품 제조 분야(떡 제조 기능사)를 신설했다. 이 분야에서는 가구제작산업기사, 화훼장식산업기사, 떡제조기능사 등 6종이 새롭게 추가됐다.

올해는 미래 유망분야를 포함한 17개 신설 자격이 정기 시험에 포함되면서 자격취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 신설 자격의 출제 기준과 시험 기간, 응시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큐넷 누리집(www.q-net.or.kr)에서 확인하면 된다.

김동만 이사장은 "앞으로 유망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과 국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능력 중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"고 말했다. ①



HRDK

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새로운 얼굴,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HRDK

**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
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.**

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, 한국산업인력공단.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궈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.

